

평 화 선 언

피폭 81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는 핵을 위협의 도구로 내세운 군사 침략과 국제법을 등한시하는 대국의 횡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개최된 NPT(핵확산금지조약) 재평가회의에서는 과거 2 차례에 이어 이번에도 성과문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나라에 책임을 전가하고 자국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인들의 언행은 NPT 가 규정하는 의무를 무시하는 것과 같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온 세상에 불신이 확산되어, 욕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제 2 차 세계대전 시대로 돌아가고 맙니다.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경시하고 자국의 번영을 위한 무력행사를 용인하면 폭력을 동반한 연쇄적 보복을 허용하여 제 3 의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그 참사를 버티낸 피폭자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시 16 세였던 한 여성은 정다웠던 언니가 겪어야 했던 일을 회상합니다. 마치 해골처럼 피부가 몽그러져 없어지고 입술이 없는 입에 이가 드러난 언니의 얼굴은 악몽 같아서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3 살에 피폭된 후 계속해서 병마와 싸우다가 55 세에 백혈병이 발병해 원폭증 진단을 받은 이 여성은, 다음에는 어떤 병에 걸릴지 늘 두려움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9 세였던 또 다른 한 남성은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직접 목격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기 내면에 자리한 적대심을 극복하고 상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를 위해 주변의 작은 일부터 숙고해 보길 바란다고 호소합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피폭자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전승하는 활동에 고취되어, 국경과 세대를 뛰어넘어 핵무기 폐기와 평화를 염원하는 행동의 고리를 확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인이 현실적인 대응으로 핵억지력에 계속 의존하고 폭력을 긍정하는 국제사회가 출현하면서 핵무기가 없는 세상은 멀어져만 갑니다. 전쟁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짐에 따라 자칫 핵무기 사용이 용인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국제연합을 창설해 핵무기 폐기를 결의했던 과거의 교훈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모든 폭력을 부정하고 핵무기 폐기라는 이상이 이상에 그치지 않는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분들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국경을 넘어서서 깊이 교류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 꿈과 희망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히로시마를 비롯한 여러 현장에서 피폭의 실상을 배우며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화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고 자기 생각을 알림으로써 그 행동의 고리를 넓혀 가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처는 서로를 인정하는 평화 문화를 전 세계에 뿌리내리게 하여 핵무기 폐기를 국제사회의 상식으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정치인이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행태를 용인하지 않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집니다. 히로시마시는 평화시장회의의 8,589 곳 가맹 도시와 연대하여 평화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활동을 후원함과 동시에 ‘히로시마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세상에 호소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인 여러분. 시민사회는 하루라도 빨리 핵무기가 폐기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실망만 안길 것입니까? 핵무기 사용이 인류에 피멸적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과 핵 군축 및 비확산은 다국 간 협력이 필수인 과제라는 사실을 다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핵보유국의 정치인 여러분은 핵 군축에 큰 책임을 지고 있으니 몸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정치인 여러분. 직접 피폭지를 방문하여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비극과 진지하게 마주하고, 평화를 향한 피폭자들의 마음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우리 시민사회는 정치인 여러분이 핵무기 폐기 결의를 피폭지에서 전 세계에 전파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국 헌법이 내세우는 숭고한 이상을 철실히 깨닫고, 국제사회에서 명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특히 각국과 단절하거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안보 환경인 만큼,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대하고 주도면밀한 외교를 추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공헌할 것을 표명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먼저 올해 11 월부터 개최되는 핵확산금지조약 재평가회의에 참관국으로서 참가하고, 한시라도 빨리 체약국이 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평균 연령이 86 세를 넘긴 피폭자 지원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들이 떠안고 있는 갖가지 아픔과 고뇌에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재외 피폭자를 포함한 피폭자 지원 방안을 토대로 충실성을 기하십시오.

오늘 피폭 81 주기인 평화 기념식을 맞이하여 피폭 희생자분들의 영령에 깊은 애도의 뜻을 올리며, 핵무기 폐기, 나아가 항구적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민사회에 호소드립니다. 전 세계 시민 여러분, 피폭자들의 절실한 뜻이 담긴 ‘히로시마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함께 행동하여 세상을 바꿔 나갑시다.

2026 년 8 월 6 일

히로시마시장 **마쓰이 가즈미**
번역 : 주식회사 인터그룹